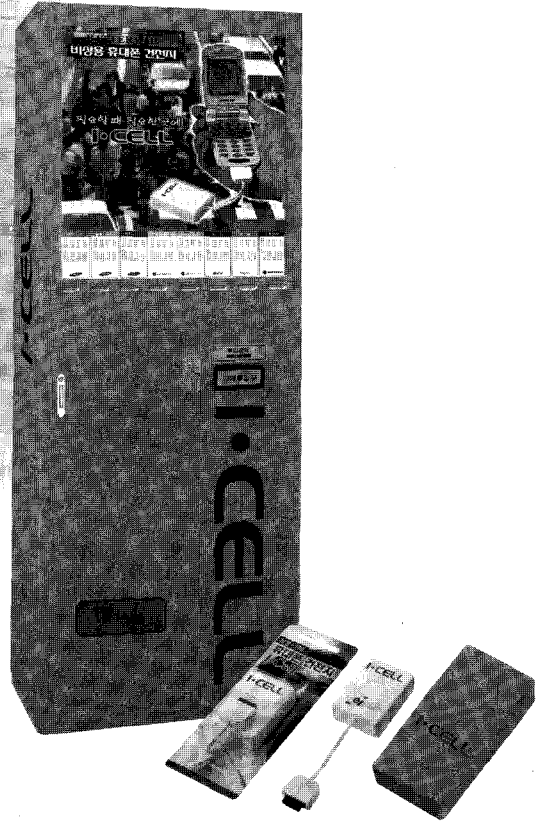


비상용 휴대폰 건전지자판기 등장

지난 한해 핸드폰 충전자판기는 가히 폭발적이라 할 만큼 시장 특수를 기록한 한해 이었다. 이동전화 가입자수가 3,000만에 육박하는 시대에 있어 적재적소에 핸드폰 충전을 할 수 있게 한 이 자판기의 성공은 시대의 흐름과 유행에 적절히 부합하는 기획상품의 중요

성이 얼마나 큰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이제는 즉석 핸드폰 충전이 낯설지 않은 문화로 자리 잡은 현실에서 최근 이 외는 차별화한 휴대폰 관련 자판기가 등장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충전에 일정시간이 소요되는 충전자판기에 비해 즉석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휴대폰 건전지 자판기가 바로 그것. 이제피아에 의해 시도되는 새로운 휴대폰 부가 서비스 자판기의 가능성을 진단해 봤다.



현재 이동전화의 배터리는 대부분 충전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 충전식에 있어서는 비록 공간적인 제약은 있지만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용 충전 이외에도, 작년부터 시장이 크게 확대된 충전자판기가 공간적인 제약성을 탈피, 적재적소의 틈새 충전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두 방법 모두 충전을 위해 일정시간이 소요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특히 외부에서 사용케 되는 충전자판기를 통한 충전은 적어도 20~30분은 걸려야하기 때문에 즉시적인 서비스와는 거리가 멀다.

이에 반해 이제피아의 비상용 휴대폰건전지 I-CELL은 즉석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의 배터리를 빼고 이 건전지를 끼우게 되면 즉석에서 통화가 가능해 비상용으로 하나 씩 휴대, 유사시에 사용할 수가 있다.

이제피아의 제품 개발동기도 바로 이 점에 있다. 이동전화 이용자들의 가장 불편한 점이 급하고 중요한 통화를 배터리 때문에 못할 경우라는 데 착안, 충전식과는 다른 구입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휴대폰 건전지 I-CELL을 개발하기에 이른 것이다.

I-CELL은 주식회사 서툼으로부터 알카라인 건전지의 기술지원과 안전회로

설계에 힘입어 탄생한 제품이다. I-CELL은 지금까지 생산되어 사용 중인 휴대폰의 95%이상에 적용이 가능하고, 커넥터 방식의 연결방식으로 연결이 용이하다. 연속 통화시 최장 90분까지 통화가 가능하고, 과전류방지에 의한 세라믹판 설계를 채택하여, 일시적인 과전류에 의한 휴대폰의 파손 및 데이터의 손상을 방지했다.

이제피아에서는 최근 이와 같은 제품특징을 갖춘 I-CELL을 본격적으로 필드에 보급하고 있다. 대리점망을 본격 구축하고 기존 유통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공급과 더불어 자판기를 통한 무인유통까지 진행한다는 계획하에 I-CELL 자판기까지 개발하기에 이른 것이다.

I-CELL 비상용 휴대용 자판기는 충전자판기처럼 그 해당제품에 대한 의존 비중이 절대적이지는 않다. 다시 말해 충전자판기처럼 없으면 전혀 사용을 못하는 개념이 아닌 유인판매가 미치지 못하는 곳 중심의 차별화된 무인판매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I-CELL에 대해 제대로 인식이 안 되어 있는 현시점에 있어서는 유인판매보다는 자판기를 통한 무인판매가 파워가 더 커 보인다. 기존 유통을 통한 판매는 다른 아이템들과 섞여 제품의 특성과 장점을 마음껏 어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에 비해 자판기를 통한 판매는 제품에 대한 확실한 컨셉을 이용자들이 주입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제피아에서도 적극적으로 I-CELL자판기를 도입하게 된 것도 바로 이 이유에서이다. 아직은 I-CELL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판기를 얼마나 많이 전개하느냐는 빠른 인식확산과 직접적으로 결부 된다.

따라서 이제피아는 앞으로 I-CELL 자판기를 다량 전개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시점에 있어 1차물량 250대를 필드에 전개하고 있고, 올해 안으로 총 500여대의 제품 전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총 2,000여 곳의 I-CELL 판매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 자판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1/4에 이른다.

이 같은 야심에 찬 목표 하에 진행되는 이제피아의 건전지 자판기는 현재 벤딩테크놀리지를 통해 OEM생산이

되고 있다. 제품 규격은 650×1700×400(mm)의 대형 제품으로 8갈림에 240개의 내용물 적재가 가능하다. 내용물인 I-CELL은 보통 3000원에 판매가 이루어지게 된다. 1000원권 지폐식별기가 장착이 되어있고 대리점 판매가는 280만원대로 책정되어 있다. 일부에서는 코스트가 많이 먹히는 대형보다는 수동으로 제작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하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피아는 대형이 아니면 소기에 의도했던 마케팅 및 판매효과를 얻기 힘들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대형중심, 그리고 가능하면 더 고급화된 모델로 가는 것이 이제피아의 제품전략인 것. 따라서 현재의 초기성능에서 반환기능, 디자인 등을 보강한 고급제품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디자인에 있어서는 現제품이 커피자판기의 이미지와 비슷하다는 의견이 많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성능 보완이 이루어지면 제품의 가격대는 350만원대로 꺾충 뒤편이 되지만 이제피아에서는 비록 전개대수가 주는 한은 있어도 제대로 된 제품을 전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제피아는 현재의 단순판매형 제품 이외에도 핸드폰 관련 액세서리까지 판매하는 복합형 제품을 기획하고 있다. 앞으로 대리점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 제품화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휴대폰 건전지 시대를 열기 위해 야심에 찬 도전을 진행하는 이제피아의 앞길에 있어선 이 제품이 과연 얼마나 빨리 소비자들에게 인식되느냐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現시점에서는 아직 소비자 인식이 미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핵심과제의 실현을 위해 이제피아는 총력을 기울여갈 계획이다. 그리고 이에 있어선 자판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구슬이 서말 여도 꿰어야 보배인 법. I-CELL 휴대폰 건전지자판기가 충전자판기 시장과는 또 다른 영역을 성공적으로 창출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